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여름들어 거리에서 집을 판매하는 사인을 보기 힘들어졌다. 6월 주택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0% 이상 떨어졌다. 사진은 렉싱턴의 한 주택 (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정기 휴간 안내**  
7월 28일자 정기 휴간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소득 상위 1%에 들려면**

커네티컷주 상위 1% 연소득 가장 높음 \$953,00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3년 기준 미국내에서 상위 1% 연소득은 \$653,000이었다. 매사추세츠에서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에셋의 분석에 의하면 매사추세츠에서 상위 1%안에 들기 위해서는 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연 \$903,000을 벌어야 했다. 스마트에셋은 이번 발표에서 IRS의 2020년 세금보고 데이터를 분석한 후 2023년 5월까지 인플레이션을 연동해 최종 수치를 조정했다.

매사추세츠는 미국내에 ▶5면으로 계속

## 보스톤 주택 6월 중간가 90만달러, 그래도 살 집 없어

구매자들의 구매의사에도 불구하고 매물 없어 높은 금리에 주택 안내놔 지난해에 비해 40%줄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23년 여름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높은 집값과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구매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6월은 가장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에 비해 거래량이 23.4%가 줄었다. 지난 20년간 6월 부동산 판매중 두번째로 낮은 거래량이다. 그레이터 보스톤부동산중개인연합(GBAR)에 따르면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지

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90만 달러(\$900,000)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899,900과 거의 동일하며 \$100이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지표로 보아 올 여름 구매자들과 판매자들 모두 높은 집값과 높은 금리에 압력을 받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앨리스 소차 GBAR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요는 조금 증가했지만 시장에 주택 매물공급이 계속 낮은 상태 ▶4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바이올린 독주회

## 8월 뉴잉글랜드 음악원 윌리엄스 홀에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독주회가 오는 8월 6일(일) 오후 3시에 뉴잉글랜드 음악원(NEC) 윌리엄스 홀에서 열린다. 드뷔시, 야나체크, 프랑크의 소나타가 연주되며, 피아노는 Yun Janice Lu가 맡았다.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 그리고 2022년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에서 각각 1위에 입상하여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인모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남윤 교수를 사사했다.

미국에서는 뉴잉글랜드 음악원(NEC)에서 미리엄 프리드 교수와 공부하였다. 그 후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안트예 바이트하스 교수와 공부했으며, 현재는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젊은 음악가들을 교육하는 독일의 크론버크 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다.

그는 파비오 루이지, 네메 에르비, 정명훈, 제임스 개피건, 데이비드 로버트슨, 마린 알슌, 오스모 벤스케 등의 지휘자들과 연주하였으며 헬싱키 필하모닉,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프랑스 내셔널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루체른 심포니, 취리히 필하모닉, 데니쉬 내셔널 심포니, 서울 필하모닉 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19년에는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그의 데뷔 앨범인 “파가니니 - 24개의 카프리스”가 출시되었으며, 2021년에는 같은 레이블에서 두 번째 앨범인 “The Genetics of Strings”가 출시되었다.

피아니스트 Yun Janice Lu는 2018 제네바 국제 음악콩쿠르의 세미 파이널리스트였으며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보스톤을 기반으로 많은 솔로 및 실내악 연주를 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를 주최하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측은 “지난 해에 계획했다가 연기되었던 양인모 씨의 독주회를 이렇게 개최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 시대의 뛰어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의 연주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 정보〉  
 양인모 바이올린 독주회  
 일시: 2023년 8월 6일 (일) 오후 3시  
 장소: New England Conservatory Williams Hall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티켓 및 정보: www.kcsboston.org  
 (일반 \$30/시니어 \$20/학생 - 사전 등록 시 무료)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괵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션현 회사사 | 세한연 회사사

서울설렁탕  
 SEUL SEORIM 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미들턴 태권도 한준휘 관장 미대표팀 선발

AAU 태권도 대회 40대 이하 품세 부문에서 1위 차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들턴 유에스테태권도 한준휘 관장이 7월 5일 미국 아마추어선수 조합(Amateur Athletic Union)이 주최한 태권도 40대 이하 품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미국 대표팀으로 선발됐다.

권도 도장을 운영한 한관장은 4월부터 9일까지 플로리다주 포트라우더데일에서 개최된 태권도 품세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AAU 결선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자격예선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한관장은 “지난 3년간 매년 출전해 2위만 차지했는데 올해 드디어 1

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고 말했다.

한 관장이 태권도 선수권 품세에 출전하게 된 것은 팬데믹이 계기가 됐다. “팬데믹 당시 사업이 저조해지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해 이겨내고자” 품세 선수로 전향했다

원래 겨루기가 주종목이었던 한 관장은 우연치 않게 품세 온라인 세미나를 듣다가 품세 선수로 전향해 연습을 하게 됐다. 2021년부터 1년 4차례 시합에 출전했으며 3년차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한준휘 관장은 국가대표로서 각종 국제 대회 시합에 미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가까이 8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대비해 팀을 소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연락은 받지 못했다.

한 관장은 “국가대표로서 열심히 해서 한인사회에 많은 보탬이 되고 싶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인들에게 무료로 프라이빗 레슨을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한 관장은 2009년 미국에 왔으며 베벌리와 린에서 유에스테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도운 관장 밑에서 3년동안 사범으로 일하다 김관장의 도움으로 미들턴에 도장을 마련해 운영하게 됐다.



## 강원도민회 골프대회 우천으로 23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강원도민회(회장 박형태)는 7월 16일 예정돼 있었던 골프대회를 보스톤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부득이하게 일주일 순연해 23일 일요일 오전 9시 매사추세츠 드래컷에 위치한 포오 크스컨트리클럽(Four Oaks CC)에서 개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해 실시되는 골프대회의 참가비는 \$150로 골프 및 카트비용이 포함된다. 강원도민회는 아침으로 김밥과 음료수를, 점심은 고급 뷔페식당음식을 제공한다.

박형태 회장은 “자연재해로 인해 골프대회가 부득이하게 연기되어 참가 예정이던 분들 일부가 일정이 겹쳐 참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고 말하고 “하지만 23일로 연기돼 16일 참가가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이번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라고 말했다.

참가문의는 박형태 회장(617-645-9066), 또는 이학재 부회장(617-862-0400)에게 하면 된다. 이번 대회에는 김치 냉장고, 쿠키, 밥솥, 골프용품 등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국내 및 해외 청소년 통일골든벨 행사 개최

### 민주평통 주최, 연 4만 여명 참가, 7월 22일 최종 결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7월 22일(한국시간) 오후 2시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3 청소년 통일골든벨 결선대회' 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예선, 본선, 결선대회 모두 대면방식으로 개최되는 대회다.

국내 및 해외에서 연 4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4월부터 진행된 예선

대회(사군구 및 해외 지역협의회 주관)와 본선대회(사도 및 해외 지역회의의 주관)에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 중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100명(국내 85명, 해외 15명)의 청소년들이 결선대회에 참가해 통일과 역사지식을 겨룬다.

결선대회는 지역별 통일골든벨 스케치 및 응원 영상 상영, 퀴즈대회, 최후의 1인 선정, 참가자 장기자랑,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결선대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한편 해외 본선대회는 7월 19일(수) 오후 2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4~6월 해외 예선대회를 통과한 미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27개국에서 온 77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위해 7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오두산통일전망대 견학 등 다채로운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통일관역사관 함양을 통한 통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청소년 통일골든벨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주택 6월 중간가 90만달러, 그래도 살 집 없어

▶▶ 1면에 이어서

가 지속된 관계로 거래가 정체되었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매자들은 점차 높은 금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상태이지만 집값의 상승과, 모기지비용으로 인해 구매력이 저하됐으며 매물의 부족으로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집 소유자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을 주게 되므로 더 많이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는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가격은 사상최고이고 많은 오퍼를 받게 되지만 새로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므로 선뜻 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현재 금리보다 훨씬 낮은 심지어 2-3%대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기에 새로운 집을 구해 7% 금리의 모기지를 안게 되는 경우 유사한 집임지라도 훨씬 높은 월 상환금

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달간 모기지 금리가 다시 치솟으면서 주택의 거래 상황은 더 나빠졌다. 지난주 30년 모기지 금리는 6.9%로 지난 11월 이래 최고로 치솟았다. 이를 월상환금으로 치환하면, 지난 1년 반년 전보다 월 \$1,500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판매자들의 머뭇거림은 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단독주택의 매물은 6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40% 폭락했으며 5월에 비해서도 20.7%나 감소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연준은 7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0년 국채금리와 궤를 같이하는 모기지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이상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누구에게도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 Steve Bae

### 이민법 전문 변호사

#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 AFFORDABLE HOUSING LOTTERY 7 DEACON FARM LN., GLOUCESTER



### 2 New Duplex Units 3BR available to first-time buyers at \$313,500

Maximum Income: 1P \$78,300, 2P \$89,500, 3P \$100,700, 4P \$111,850, 5P \$120,800, 6P \$129,750

Information Mtg. 8/16/23 @ 6pm  
Zoom ID: 854 9040 8942, Passcode: 707923

Lottery Date 9/20/2023 @ 6pm  
Zoom ID: 868 6045 0908, Passcode: 863241

Application Deadline: 9/15/23  
Maximum Assets \$75,000.

Applications:  
Kristen Costa, L.A. Associates, Inc.  
(978) 758-0197 kriscosta@laassoc.com



# 32세 여성, 보스톤서 여고생으로 1년간 학교출석

## 보스톤 공립학군에서 2개 학교에 등록해 학교다녀 농구팀에도 들어가 실제 학생처럼 1년여간 행동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32세의 전 주자녀가족부(DCF) 소셜워커가 조작된 이름으로 보스톤공립학군의 2개의 고등학교에 재학했으며 보스톤공립학교학생인 것처럼 행세해 파문을 일으켰다. 캠프에 거주하는 32세의 쉐비 휴잇은 버젓히 지난해 9월 14일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보스톤 공립학군에 재학했다.

그러나 잉글리시 고교의 관계자들은 이 학생의 서류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녀의 정체기가 드러났다. 관계자는 제출 서류에 어린이가족부(DCF)의 스펠링이 잘못 기재됐으며 담장 소셜워커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확인되지 않자 의문을 제기했고 보스톤 공립학군 메어리 스키퍼 교육감은 이 여성의 정체를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고 경찰 또한 수사에서 인신매매 등의 문제가 없었으나 고교생 행세를 한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법원에 출두한 휴잇은 실제 고교생처럼 어

린 모습이였다. 경찰은 지난달 가택수색에서 휴잇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버크고교에서는 대닐라, 잉글리시 고교에서는 엘리 알레산드라 블레이크란 이름을 사용했음을 발견했다. 이집은 휴잇씨와 부모라고 칭하는 다른 2명이 함께 사는 것처럼 서류상에 기재됐다.

같이 학교생활을 했던 버크 고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성인 여성이 왜 청소년처럼 가장하고 수개월 동안이나 학교에 다녔는지 당혹해했다. 또한 왜 학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 여성을 입학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보스톤글로브와 인터뷰한 학생들은 휴잇이 자주 말을 바꿨다고 이야기했다. 휴잇은 농구팀에서 활약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그녀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으며 자신을 키우는 엄마가 너무 자신을 컨트롤한다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농구팀 동료들은 그녀를 올 봄에 마지막으로 봤다고 기억했다. 6월 8일 그는 잉글리시 고교에 엘리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으며 잉글리시 고



교의 관계자들에 의해 그녀의 정체기가 들통나게 됐다.

휴잇이 사칭한 실제 명의인 사람은 자신은 휴잇이 누구인지 모르며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고 경찰에 밝혔다.

휴잇은 문서위조, 허위 문서 사용, 신분사기 등의 혐의로 18일 기소됐다. 휴잇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무죄라고 기소인부절차에서 주장했다.

왜 휴잇이 학생인 것처럼 학교에 다녔냐는 질문에 그녀의 변호사 티모시 플래허티는 어떻게 학교는 그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지 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플래허티는 휴잇이 오랫동안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휴잇이 유매스보스턴에서 소셜워커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에서 소득 상위 1%에 들려면

▶▶ 1면에 이어서

서 커네티컷의 \$953,000에 이어 두 번째로 상위 1%의 연소득이 높았다. 그 뒤는 캘리포니아(\$844,000), 뉴저지(\$817,000), 그리고 워싱턴주(\$805,000) 순이었다. 다만 워싱턴 DC는 상위 1%에 들기 위해 연 소득이 1백만달러가 높아야 했다. 비교적 소득이 낮아도 상위 1%에 들 수 있는 미국내 주들은 알칸사스(\$451,000), 캔터키(\$445,000), 뉴멕시코(\$411,000), 미시시피(\$382,000),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368,000)가 마지막을 차지했다.

한편, 미국내에서 상위 1%에 드는 순 자산은 2020년 기준 1억1천1백만달러였다. 이들은 총 1백 31만 가구였다. 상위 1%가 지급하는 소

득세는 전체 소득세의 42.3%였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내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735명의 빌리어네어가 살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28%다.

웹사이트 슈퍼카지노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20명의 억만장자를 배출해 미국내에서 인구 10만명당 억만장자가 가장 많이 배출한 주 2위를 차지했다.

가장 억만장자가 가장 많이 출생한 주는 뉴욕이며 뉴욕은 10만명당 억만장자 수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인구당 억만장자 배출수가 많은 3위는 로드아일랜드였다.

hsb@bostonkorea.com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J.K. PLUMBING & HEATING

##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 978.303.7000

#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기생충으로 인한 집단발병 MA 비릇 전국서

## 581명이 기생충으로 인한 배탈 CDC 조사중 배탈설사와 감기 증세 유발 매사추세츠에서 50여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샐러드 등 여러가지 종류 익히지 않은 음식 섭취에서 오는 기생충 감염 질병이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31개주에서 집단발병했다. 지금까지 581명이 감염됐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약 50여명이 발병했다.

CDC와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사이클로스포라 케이테넨시스 기생충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조사중에 있다. 이 질병은 야채 등의 식품과 배설물에 오염된 식수를 통해서 전파된다. 질병통제센터는 이 사이클로포리아시스 감염이 일반적으로 익히지 않은 음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질병은 복통과 폭발적인 설사를 유발하며 장내 가스를 증가시키

고 메스꺼움, 구토, 피로 등과 두통, 몸살, 고열 등 감기 같은 증상도 유발한다. 사이클로포리아시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수주에서 한달 정도 증세를 겪게 된다. 만약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재발하며 계속 이런 패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건국은 밝혔다.

이 질병은 항생제를 통해 치료해야 하며 병원은 이 질병을 CDC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581명 중 55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질병은 6월 22일까지 371명이었으나 이후 보름만에 581명으로 증가했다.

CDC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발병 원인이 되는 음식을 찾아내지 못

했으며 현재 감염자들이 섭취한 음식을 중심으로 조사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식품의약국(FDA)는 사이클로스포라의 집단발병에 대한 두가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발병의 근원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50명이 감염됐다.

이 질병은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특히 봄철과 여름철에 감염율이 급증한다.

올해초 연방 보건 관계자들은 조지아와 알라바마에서 집단발병한 사이클로포리아시스의 경우 생브로컬리와 연관이 있었으며 20명이 감염됐었다고 발표했다. 이 브로컬리는 수입산 브로컬리였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감염이 발병하기 전 14일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조사해야 하며 이중에 공통적인 음식을 발견해서 이 식품이 여전히 판매중인 경우 권고를 발령한다.

hsb@bostonkorea.com



# 뉴햄프셔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 주의보 기록적인 시아노박테리아 창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맑은 계곡물과 호수로 유명한 뉴햄프셔에서 물놀이 주의보(advisory)가 내려졌다. 주의보는 경보(alert)보다 훨씬 심각한 경고다.

뉴햄프셔 주 보건부는 6,7월 연속 뉴햄프셔 강 및 호숫물에 기록적인 시아노박테리아 주의보를 내보내고 있다

7월만도 벌써 7번의 주의보가 내려져 전 달의 8번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들어 내린 집중호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도와 선택시스템이 범람해 이것이 그대로 바다와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도 있고 있기 때문이다.

뉴햄프셔 주는 지도를 만들어 수영하기 안전한 곳을 알리고 있다.

<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180c28fa3a4c4371a9771d999454e8c4/>

이 지도는 언제 '수영 주의보'가 내렸는지 언제 샘플을 수집했는지 어떤 종류의 시아노박테리아가 발견됐는지 등이 표시되어 있다.

18일 뉴햄프셔에서는 4개의 배설물 박테리아 주의보가 내려졌

다. 2개는 워터발밸리와 노스우드타운 비친 노스우드이며 다른 두곳은 브레드포드의 프렌치파크, 라임 포스트폰드의 체이스비치였다. 이 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폭우로 배설물들이 흘러 들어가 발생된 것이다.

뉴햄프셔 수자원부의 테드 다이어스는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 할 때 특별히 안전한 곳인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고(alert)는 주의보(advisory)에 비해 약간 심각도가 낮은 것이며 시아노박테리아 수준이 거의 주의보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 그 범위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다.

케이트 헤이스팅 뉴햄프셔 환경서비스부 시아노박테리아프로그램 매니저는 경보가 내려진 경우 사람이나 반려견의 수영이나 물놀이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테리아는 노출정도에 따라 피해도 다르지만 피부와 눈 코 등에 발진을 일으키고 소화불량,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는 뇌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때로 심각한 경우 발작과 사망을 일으키기도 한다.

hsb@bostonkorea.com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가난한 X세대들 중 아시안이 백인보다 부유

**X세대 수백만명 은퇴저축 단 한푼도 없어  
초라한 은퇴성적표, 이 세대의 40%는 은퇴저축 없어  
여러 차례 경제위기 겪어야만 했던 잊혀진 세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 벽 기자 = X세대의 은퇴시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난한 세대로 불리는 이 세대의 상당수는 전혀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안들은 가장 높은 자산과 저축을 보유해 가장 충분한 은퇴자산을 확보하고 있었다.

전국은퇴안보연구원(NIR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65

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X세대의 40%는 전혀 은퇴저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가정은 약 4만 달러를 저축하고 있다.

특히 \$4,300 이하의 저축을 보유한 저소득층 X세대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사실, X세대의 은퇴저축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의 경우 극히 낮은 저축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시안 X세대는 인종 중

가장 많은 은퇴저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순자산 측면에서도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했다. 그다음은 백인이었으며 흑인과 히스패닉은 커다란 차이로 뒤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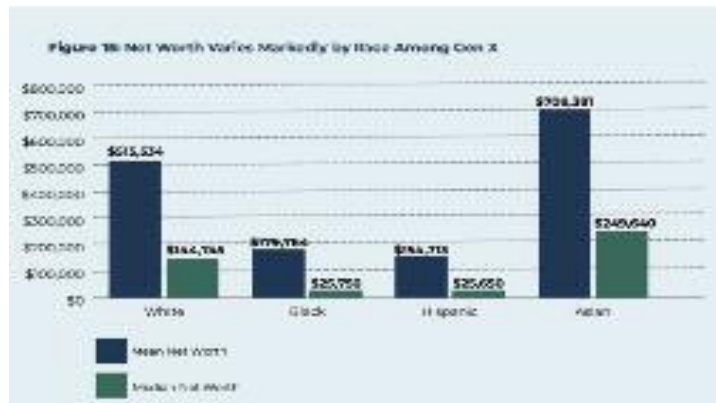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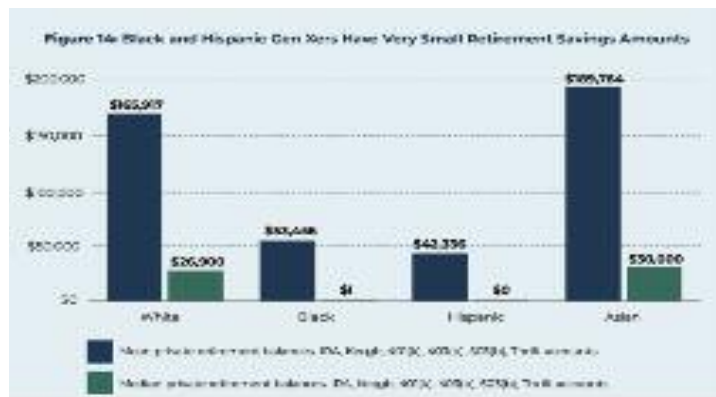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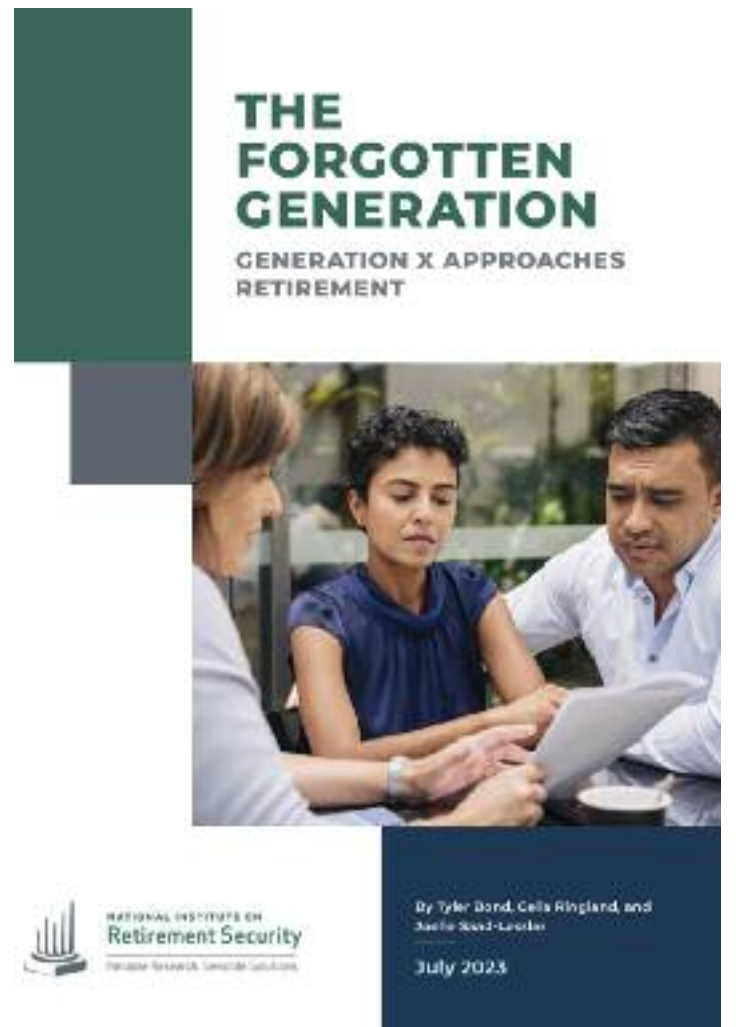
댄 두넨 NIRS 대표는 “X세대는 곧 은퇴할 연령대에 이르지만 대다수는 은퇴저축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X세대는 몇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금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따라잡지 못했다. 따라서 너무 많은 X세대에게 은퇴는 악몽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X세대는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과 같은 비율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세대이며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은퇴저축에 가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약 57%의 남성이 은퇴저축이 마련되어 있으며 여성은 약 53%가 은퇴저축이 마련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정생활을 하는 남녀들도 은퇴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X세대에 비해 저축율이 많지만 절반 이상의 결혼한 남녀는 충분한 은퇴저축 목표보다는 약 10% 정도 적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잊혀진 세대란 이름의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범위로 X세대의 은퇴저축을 평가했다.

X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을 통해 은퇴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 14%의 X세대만이



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절반만 직장을 통한 은퇴저축에 가입해 있다.

“이런 결과로 상당부분의 X세대는 사실상 은퇴를 위해 아무것도 저축한 게 없으며 대부분은 현재의 생활처럼 은퇴 후에서 영위할 수 있을만큼 충분하게 저축해 놓지 않고 있다” 고 타이러 본드 NIRS 연구소장은 밝혔다. 그는 “

저축을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소셜시큐리티 연금만으로 충분한 은퇴생활을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X세대의 초라한 은퇴 성적표다

한편, 401(k)의 경우 항상 참여율에는 남녀 성별차이가 뚜렷했지만 Z세대 여성들은 남성 참여율을 추월했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연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안전한 타운 브루클라인 고급 주택에 총 든 무장강도

## 범인들 감시카메라의 위치 정확히 인식, 이집 노린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내 대표적 안전한 타운으로 손꼽히는 브루클라인의 리저브와 주변 고급 단독주택에 마스크를 착용한 무장 강도가 침입했다.

브루클라인 경찰에 따르면 워렌 스트리트(45 Warren St)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2명의 무장강도가 침입해 집안에 있는 61세의 남성을 공격했다. 이 남성은 머리에 3인치 가량의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집안에는 52세의 남동생이 함께 있었다.

두명의 무장강도는 새벽 2시 20분께 2층의 발코니를 통해 집에 침입했

으며 두 형제 중 한 명이 2시 17분에 경찰에 신고했다. 총이 집안에서 발사됐지만 총에 의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

브루클라인 경찰서 데이비드 힐 부서장은 “우연한 침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집이 위치한 것으로 보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는 것으로 보아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경찰은 감시카메라에 비친 범인들이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마스크와 글러브 그리고 검정색 옷을 착용했다.

경찰은 이 집에서 잃어버린 물건

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18일 경찰은 이 두명의 무장강도의 신원파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주택은 월담의 회사 H. 애너스 LLC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4,250스퀘어피트의 집을 지난해 10월 4백80만달러에 구입했다. 이 회사의 매니저는 뉴튼 거주인이며 이 회사는 텔라웨어에 등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매사추세츠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설립시 텔라웨어를 선택한다.

경찰은 누구든지 동영상에 있는 인물을 아는 경우 617-730-222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sb@bostonkorea.com



## 글러스터, 3베드룸 어포더블 하우스 로터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글러스터 소재 워싱턴 스트리트에서 이어지는 디컨팜 라인(Deacon Fam Lane)에 위치한 3베드룸 2채 어포더블하우스 로터리 접수가 시작된다. 설명회는 8월 16일이며 마감은 9월 15일이다.

7디컨팜 라인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10만 스퀘어피트의 부지에 듀플렉스로 2채의 어포더블 하우스가 건축됐다.

2채의 어포더블 하우스는 3베드룸에 2베스를 갖췄으며 약 1320 스퀘어피트 크기다. 이 유닛은 1층에 부엌, 마스터베드룸, 풀베스, 위아래로 설치하는 룬더리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2층은 2베드룸 1개의 풀베스가 있다. 지하실은 마감이 되지 않았다.

포함된 전기 장비는 전기 스토브, 마이크로웨이브, 디시워셔, 냉장고이며 세탁기와 드라이는

임주자가 구입해야 한다. 냉난방은 미니 스플릿으로 되어 있으며 전기온수히터가 있다. 상하수도 는 타운의 상하수도를 사용한다. 이 콘도 가격은 \$313,500; 이며 콘도수수료는 월 \$75이다. 프로퍼티 세금은 월 \$270이다.

신청자격은 4인 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111,850이하여야 하며 최대 자산은 \$75,000이하여야 한다. 설명회는 8월 16일 오후 6시에 줌으로 개최된다. 신청 마감은 9월 15일, 로터리 추첨은 9월 20일 오후 6시 줌으로 개최된다. 소득 및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스톤코리아 신문광고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은 kriscosta@laassoc.com에게 할 수 있다. 신청서는 www.laassoc.com 또는 힙햄 타운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hsb@bostonkorea.com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4. 6. 30	2024. 7.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 α

II. 보상금 청구

신청대상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민법상 상속권자

신청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준하여 발급 제출

III. 보상금 지급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준하여 발급 제출

IV.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 9천만원
- 수형인 :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 4,5천만원      벌금형 : 3천만원

후유장애인 :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 9천만원      4~8 등급 : 7.5천만원      9~14 등급 : 5천만원

제외대상 :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신청대상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민법상 상속권자

신청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준하여 발급 제출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준하여 발급 제출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송의 5분요가

#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하루 3분 운동!



아침 공복 운동이 체중감량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처럼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는 걸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도 5분만 일찍 일어나야지 굳게 다짐하지만, 침대 위에서 5분만 더 뒹굴뒹굴 하고픈 유혹에 게으름 피울때도 많아요. 그리하여 오늘은 저처럼 게으름 날 때 하기 좋은 아주 짧은 모닝 운동 시퀀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짧지만 임팩트있게 할 수 있는 3분 복근 운동 루틴이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은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6) 살빼지는 요가 | 초보자도 할 수 있는 3분 복근 타바타 편을 찾아 따라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 1. Plank + Knee Tap : 코어와 팔 근력 강화, 뱃살 감량

1단계 어깨를 손목 위에 위치하게 한 후 다리를 뻗어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무릎을 접어 바닥에 내렸다가 다시 무릎을 펴서 플랭크로 올라옵니다.

3단계 30초 동안 업다운을 반복합니다.

4단계 호흡을 일정하게 진행하며 복부를 끌어당기며 코어의 힘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TIP! 무릎을 올릴 때,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



게 계속 첫번째 위치를 유지해주세요.

### 2. Lying Plank 변형 : 복근 강화, 허벅지 토닝

1단계 이번엔 등을 대고 무릎을 접었다가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2단계 손은 어깨 위로 올리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렸다가 길게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3단계 호흡을 내실 때 다리를 펴고 들어올릴 때 다시 끌어오면 됩니다.

4단계 30초 진행 후 다시 손을 바닥에 댄 플랭크 자세로 돌아오세요.

TIP! 다리를 뻗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코어의 힘을 더 써주세요.



### 3. Elbow Plank 변형 : 옆구리살(허리살) 감량, 어깨 토닝

1단계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로우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며 레인보우

플랭크를 실시합니다.

3단계 힙 디ップ을 하는게 어려우신 분들은 플랭크 자세에서 버티셔도 좋습니다.

4단계 30초 진행 후, 바로 다음 동작 준비를 위해 누워줍니다.

TIP!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어깨는 귀에서 멀리 목을 길게 유지하고 바른 자세에서 운동해주세요.



### 4. Bridge Pose : 쿨다운 스트레칭

1단계 누워서 바빠졌던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며 엉덩이를 올려줍니다.

2단계 엉덩이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도 좋고 한자세에서 호흡하며 버티어도 좋습니다.

3단계 허리를 시원하게 늘린다는 생각으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4단계 원하는 만큼까지 충분히 자세를 진행하고 내려와 휴식합니다.

TIP! 하체 근력과 척추, 코어 힘을 동시에 길러주는 동작이기도 하니, 앞의 복근 운동 후



, 마지막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해주세요.

### 하연샘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http://www.yogafullness.life)

## 형제 떡집

##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 HURAM 성형외과

한 사람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유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유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해 고민은 후유, 흉터 걱정 없습니다.  
최신 선진 의료 기구, 전문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최상의 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면윤곽술	안면윤곽술	안면윤곽술	HURAM 성형이벤트		
154만 원	154만 원	660만 원	10% 할인 혜택		
안면윤곽술	안면윤곽술	안면윤곽술	안면윤곽술	안면윤곽술	안면윤곽술
330만 원	264만 원	220만 원	550만 원	220만 원	110만 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5 HURAM 성형외과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메디케이드(매스헬스) 재심사에 대한 문답식 풀이

## 1. 메디케이드 재심사 (Medicaid Redetermination)란 무엇입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각 주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해 최소 1회 갱신을 실시하여 더 이상 수혜자격이 없으면 등록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의회는 주정부로 하여금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더 이상 그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등록 해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인들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잃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Public Health Emergency, PHE)가 종료되었으므로 연방법에 따라 주에서는 정기적인 메디케이드 갱신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즉, 향후 12개월 동안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메디케이드를 갱신하게 됩니다.

## 2. 메디케이드 재심사 (Medicaid Redetermination)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거주하는 주의 메디케이드 기관에 본인의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 하십시오.

의료보장을 유지하려면 메디케이드 갱신 양식이 오면 반드시 회답하십시오.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보십시오: 더 이상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직장, Health-Care.gov의 마켓플레이스, 또는 메디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 3. 메디케이드 재심사 (Medicaid Redetermination) 과정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ACA (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직장 건강보험, 또는 메디케어와 같은 다른 형태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조건이 메디케이드 자



격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디케이드를 재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옵션은 자체의 특별등록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및 플랜 결정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SEP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4.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며 메디케이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메디케이드 재심사

로 메디케이드를 잃을까봐 걱정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 수준이 얼마입니까?

메디케이드는 한정된 소득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각 주마다 고유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다음의 소득 수준이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됩니다:

독신이고 월 소득이 \$1,677 이하이거나,

결혼한 커플이고 월 가구 소득이 \$2,268 이하.

만약 65세 이상이면 메디케이드 수혜가능 자산 한도가 있는데, 독신이면 \$130,000, 부부의 경우는 \$195,000입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또는 거주하는 주의 메디케이드 지역사무소에서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 테슬라 2분기 이익률 하락...머스크 "미래 가치 위해 마진 희생"

가격 인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9.6% 기록...작년 동기보다 5%p ↓ IRA 혜택 등에 순이익은 작년보다 20% ↑ ...총매출은 47%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이익률은 하락했다.

19일(현지시간) 테슬라가 공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순이익은 27억300만달러(약 3조4천200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총매출도 249억2천700만달러(약 31조5천80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다.

총매출액은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244억7천만달러)를 웃돌았고,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0.91달러로 시장 예상치(0.82달러)보다 소폭 높았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gross profit)은 45억3천300만달러(약 5조7천400억원), 매출총이익률은 18.2%를 기록했다.

매출총이익률은 작년 동기(25.0%)보다 6.8%포인트, 전 분기(19.3%)보다는 1.1%포인트 각각 떨어진 수준이다.

영업이익률도 9.6%로, 작년 동기(14.6%)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모두 지난 5개 분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핵심 사업인 자동차 부문 매출이 212억6천800만달러(약 26조9천500억원), 에너지 발전·저장 부문 매출이 15억900만달러(약 1조9천100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46%, 74% 늘었다. 서비스와 기타 부문 매출도 21억5천만달러(약 2조7천200억원)로 47% 증가했다.

테슬라의 2분기 순이익 증가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적용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도 영향을 줬다.

테슬라는 앞서 IRA 적용으로 올해 분기당 1억5천만~2억5천만달러(약 1천900억~3천2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2분기 수혜 금액 역시 이 범위 안에 있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는 여러 측면에서 기록적인 분기였다"며 "생산량과 인도량 모두 최대 실적을 냈고, 매출이 250억달러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있는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 기쁘다"며 "1분기와 2분기의 가격 인하에도 영업이익률은 약 10%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자사의 모델Y가 지난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은 이날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마진(이익)을 계속 희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극적인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마진을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가치는 엄청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익률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이날 머스크의 이런 언급이 나온 뒤 미 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4.20% 내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이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사가 설계한 '4680' 배터리 셀의 생산량을 늘리고, 신차 사이버트럭과 인공지능(AI) 개발, 그밖의 대형 프로젝트에 비용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테슬라는 "AI 개발의 최전선에서 쫓는 우리의 약속은 '도조' 훈련 컴퓨터의 생산 개시로 새로운 장에 접어들었다"며 "우리가 자체 설계한 도조 하드웨어를 이용해 대량 신경망 훈련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이 같은 AI 신경망 능력이 향상될수록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개발팀이 새로운 해법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제조허가)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이를 협의 중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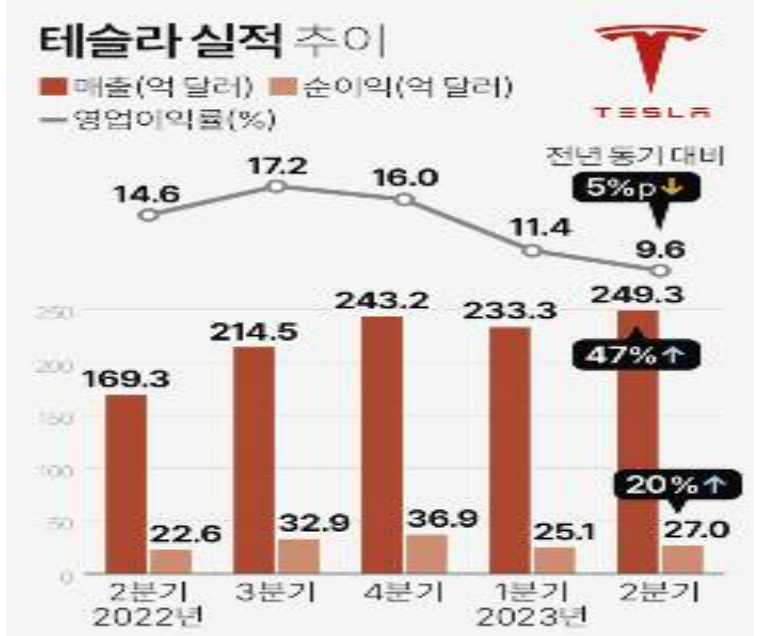
동차 회사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올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 180만대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지만, 3분기에는 각 공장 시설의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약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은 올해 안에 첫 제품이 인도될 예정이며, 대량 생산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a@yna.co.kr



**중환안과**  
www.journeye.co.kr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의료시업팀장 **김수남**

# 7월 15일간 가장 더웠다...미국 기상청 "더위 표현 다 떨어져"

### "관측 이래 가장 더운 7월 될듯"...아시아·유럽·북미 모두 기록적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전 세계가 극단적인 폭염 등 기상 이변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번 달 들어 15일간의 역대 가장 더운 15일이었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카를로 부온템포 국장은 "이번 달 들어 15일째가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며 "역대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3S는 지난달 역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이었으며, 세계 평균 기온이 1991~2020년 6월 평균치보다 0.53도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

지구 기온은 1800년대 중반 이후 섭씨 1.2도 가까이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극심한 폭염과 가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더 강해진 폭풍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부온템포 국장은 "기후 변화가 전체 기후 체계를 데우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수온 상승과 평소보다 약한 바람 등의 두 가지 현상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가 모두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번지고 있다.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 농작물이 시들고 빙하가 녹으며 산불 위험도 증가한다. 사람들은 열사병, 탈수, 심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된다.

각국 정부는 폭염 경보를 발령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천식 환자들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리스에서는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수도 아테네 북쪽 데르베노초리아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고온과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아테네 서쪽 해변 휴양지 루트라키와 동남부 로도스 섬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5일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돼 4천600ha(헥타르·1ha=1만㎡)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으며 건물 20여채가 불탔다. 스페인 남부 마을

비아로블레도에서는 기온이 섭씨 47도까지 치솟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수도 로마와 피렌체를 비롯한 23개 도시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지난 18일 로마의 기온은 섭씨 41.8도까지 올라가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으며 사르데냐와 시칠리아에서는 역대 유럽 최고 기온인 섭씨 48.8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남부에서도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중국 베이징은 27일 연속으로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을 기록했다.

베이징 당국은 고령층과 어린이 등 폭염 취약 계층에 외부 활동 시간을 단축할 것을 당부했다.

지구상에서 더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는 지난 16일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3.3도에 달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선 지난 18일 기온이 섭씨 47도를 기록하는 등 19일 연속으로 이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3.3도(화씨 110도)를 넘어섰다.

텍사스주 샌앤젤로에서는 기온이



7월 19일 가지지구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머리에 물을 붓는 남성

섭씨 42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 기상청(NWS)이 "오늘 더울 것"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 떨어졌다"며 "폭염 안전 지침을 지킬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 7월 평균 기온이 섭씨 32도 정도였던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에서는 20일 기온이 50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스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기후연구소의 로베르 보타르 소장은 "유럽과 전 세계의 폭염이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모두 기후 변화라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강화된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 부실 · 능력 대처 충북지사 · 청주시장, 분향소 언행

### '오송 참사' 후 첫 공식 사죄 불구 능력 대처 비판에 항변 "초기 한두 명 사상자 발생 정도로만 생각"...

### 이범석 청주시장은 묵묵부답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부실 · 능력 대처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과 이범석 청주시장이 합동분향소에서 보인 말과 행동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20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참사 관련 합동분향소를 찾은 김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전형적인 '유제이탈 화법'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지사는 충북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 · 재해 상황의 총지휘관이자 책임자이다.

그런 그가 책임자를 밝히겠다는 건 자신의 책임은 뒤로하고 모든 걸 실무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김 지사의 해명도 논란이 됐다.

김 지사는 "(내가) 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송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4분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괴산댐 월류 현장을 들렀다가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오송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된 지 약 5시간이나 흐른 뒤다.

김 지사는 현장에 도착하기 1시간여 전까지도 정확한 실태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총지휘관이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도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김 지사의 해명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발언이 논란되자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책임자를 밝히겠다고 한 발언 속 책임자는 나를 포함한 우리(공무원) 모두를 지칭한 것으로 의미 전달이 왜곡됐다"고 재차 해명했다.

사고 현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내가 현장에 일찍 가서 지휘 · 통제 · 구조 등을 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것과 대형참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그는 미호강이 범람했는데도 공평지하차도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여론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합동분향소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분향을 마치고 나오는 이 시장에게 기자들이 심경을 물었지만, 그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이날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 시장은 여전히 공식 사과가 없는 상태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불의로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청주시도 참사 전 금강홍수통제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방 등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수차례 전달받고

충북도에 전과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 시장의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본분을 망각한 두 단체장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은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다"며 "법률적인 처벌이나 책임의 문제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 두 단체장이 지금 해야 할 일

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평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jeonch@yna.co.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LY 21st - JULY 27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THE ULTIMATE SUMMER ESSENTIAL, COLD TOFU NOODLE SOUP

Beat the heat this summer with a refreshing, silky-smooth tofu noodle soup!  
 H 마트와 함께 만든 두부 콩국수로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버리세요!



**중복**  
 금년 중복은 7월 21일입니다.

<b>Honey Ataulfo Mango</b> 허니 아토폴로 망고 BOX <b>\$12.99</b>	<b>Packed Garlic</b> 짜마늘 5 PCS/PKG <b>\$1.99</b>	<b>Kabocha</b> 단호박 LB <b>\$1.49</b>	<b>White Peach</b> 백도 LB <b>\$3.99</b>	<b>California Korean Melon</b> 캘리포니아 참외 BOX <b>\$19.99</b>
<b>ZESPRI SunGold Kiwi</b> 제스프리 섀플드 키위 BOX <b>\$24.99</b>	<b>Hass Avocado</b> 헤스 아보카도 EA <b>\$0.99</b>	<b>Ginger</b> 생강 LB <b>\$2.99</b>	<b>PULMUONE Tofu</b>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b>\$3.99</b>	<b>Sweet Potato</b> 고구마 LB <b>\$2.4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A CHOICE</b>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b>\$10.99</b>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b>\$6.99</b>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피지 갈비 (바베큐용) LB <b>\$2.99</b>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b>\$1.99</b>
<b>USA CHOICE</b> Frozen Thin Sliced Beef Brisket 냉동 차돌박이 LB <b>\$13.99</b>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사태 LB <b>\$2.99</b>

### 심심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Head-on Shrimp 홍콩배 머리새우 PREMIUM/30-40'S LB <b>\$5.99</b>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LB <b>\$8.99</b>
TONGTONGBAY Dried Dashi Anchovy 홍콩배 다시 멸치 PRODUCT OF KOREA 1 LB/PKG <b>\$10.99</b>	Frozen Cleaned Cuttlefish 검정 멧장 갑우징어 LB <b>\$5.99</b>
SHINWHA Roasted Bartail Flathead/ Filefish/ Fillet 신화 구운 알태포/ 아귀포/취치포/취포개 3.52-4.58 OZ X 2 EA/PKG <b>\$8.88</b>	FRESH/SUN ONLY 급, 직, 일 한정판에 Fresh Salmon Fillet 연어 필렛 LB <b>\$9.99</b>

### SMART CARD MEMBER ONLY

<b>H MART SMART CARD ONLY</b>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찰 유기농쌀 15 LB <b>\$49.99</b>	<b>H MART SMART CARD ONLY</b> 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b>\$15.99</b>
<b>H MART SMART CARD ONLY</b> DANYA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단야 메밀소바 3 LB <b>\$4.99</b>	<b>H MART SMART CARD ONLY</b> NATURE'S YOKE Legacy Grade A Free-Range Large Brown Egg 네이처스 요크 방목형 황란 (대) 18 EGGS/PKG <b>\$4.99</b>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b>\$15.99</b>	HAO Premium Roasted Laver 해오름 구운 스키림 10 SHEETS 0.98 OZ <b>\$1.99</b>	CHUNG 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Gochujang 청정원 100% 현미 태양초 참 고추장 1.1 LB <b>\$4.99</b>	THREE CRABS BRAND Fish Sauce 삼계상표 순 멸치 액젓 24 FL OZ <b>\$4.99</b>	ESENCIA Grape 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3.8 FL OZ <b>\$6.99</b>
SAHMYOOK Plain Soy Drink 삼목두유 평국 32 FL OZ <b>2\$5</b>	S&B Golden Curry S&B 골든카레 MILD/HOT /MEDIUM HOT /EXTRA HOT 7.8 OZ <b>\$3.49</b>	DONGWON Light Tuna with Hot Pepper Sauce 동원 고추 참치 5.29 OZ X 4 EA/PKG <b>\$8.99</b>	GOMPYO Korean Pancake/Frying Mix 곰포 튀김/부침 가루 2.2 LB <b>\$2.49</b>	SUNGGYUNG FOOD Pepper Chips 성경식품 고추부각 2.12 OZ <b>\$2.99</b>
ORION Pocachip Snack 오리온 포카칩 ORIGINAL/ONION 4.83 OZ <b>\$2.99</b>	MAEIL Biofeel Yogurt Drink 매일 바이오필 요구르트 2.13 FL OZ X 25 EA/PKG <b>\$4.99</b>	Bamboo Seat Cushion 고급 대나무 방석 THIN/THICK \$6.99 <b>\$3.99</b> 45 X 45 CM EA	Hello Kitty Soft Roll Tissue 헬로키티 소프트 휴지 <del>\$23.99</del> <b>\$15.99</b> 30 ROLLS PKG	B&B Plate 바베큐 상단 접시 <del>\$7.99</del> <b>\$5.49</b> 3 PCS SET

**bibigo**  
Taste the tradition of **Bibigo Kimchi** at H Mart  
H 마트에서 비비고 김치를 맛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8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0 GLENN DR  
BURLINGTON, MA 01803

**QUINCY**  
01508 BROAD ST  
QUINCY, MA 01906

This offer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ultiple shipme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형편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s@hmart.com](mailto:ms@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est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 제 봉</b> DIRECTOR 781.654.5281 <small>jebeo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mall>stev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팀장 한 준 희</b>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small>junh@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small>cash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small>christi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신 보 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mall>bo@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	---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다이애나 김</b> 617.271.2007 <small>kdia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줄리 김</b> 578.434.2043 <small>juli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니키 박</b> 617.447.0591 <small>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피터 루</b> 617.780.7835 <small>le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지나 최</b> 578.888.3248 <small>jei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윤 조주</b> 401.935.3397 <small>yoonj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시라 루</b> 617.888.5787 <small>sa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그레이스 릿</b> 617.435.7713 <small>grac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현수 김</b> 617.588.8973 <small>hye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사 송</b> 213.303.0397 <small>mi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메기 리</b> 413.507.1402 <small>me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순호 태</b> 617.913.3369 <small>sungh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희진 김</b> 617.877.0387 <small>heeji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영선</b> 781.850.3412 <small>mye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은숙 김</b> 781.899.1214 <small>eunsoo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장형 김</b> 617.315.1162 <small>janghyu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훈 김</b> 617.543.5728 <small>jiho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래얼 김</b> 617.852.7489 <small>raeeu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Tammy Woolfolk</b> 917.224.5610 <small>tamm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Nancy Wang</b> 617.230.9952 <small>nanc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Shirley Zhao</b> 857.231.0316 <small>shirle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Whyan Yu</b> 617.385.2718 <small>why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Xian Dole</b> 413.322.8979 <small>xi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u Jiang</b> 240.449.0117 <small>lu@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ohn Tran</b> 617.408.9862 <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Rebecca Phu</b> 617.833.1083 <small>re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chael Somma</b> 978.873.0376 <small>michae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nda Tu</b> 857.210.8890 <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un Wang</b> 649.270.2623 <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ly Wang</b> 617.338.7212 <small>lil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Crystal Wei</b> 413.208.0255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gela Zullo</b> 774.288.8199 <small>angel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제이크 김</b> 617.595.3409 <small>jea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강현</b> 857.280.0434 <small>i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thony Tran</b> 857.288.4659 <small>anthon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na Delangre</b> 413.237.1586 <small>mi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걸핏하면 '고소·고발'...교사들, 학부모 악성민원에 멎는다

피해 교사들, 심리적 고통 호소... "불안감에 섭식장애 겪기도"  
교원단체 "악성민원에 무방비 노출...민원시스템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1. A 교사는 점심시간에 행정 업무를 보던 중 반 학생 두 명이 싸움을 벌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몇 달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교사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충격을 감당해야 했다.

#2. 경기 지역의 B 교사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이 상대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표절했다는 항의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표절 사실이 없자 항의한 학생에게 "근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며 훈계했다. 이후 학부모는 B 교사의 훈계를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어 한다며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3.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는 수업 중 친구들과 놀던 C 군이 얼굴 부위를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C 군의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직접 사과와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담임교사의 사과에도 C 군의 부모는 유치원을 찾아가거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다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담임교사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경

찰·검찰 수사를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섭식장애와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지난 18일 오전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라는 소문이 확산해 경찰이 조사 나갔다.

아직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학부모 악성민원에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의 민원으로 지난해 7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던 전북지역 D 교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교단에 설 자신이 없다"면서 "어렵게 학교로 돌아왔지만, 아이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자리를 피하거나 잠시 혼자 있는 공간을 찾아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다시 교실로 돌아간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D 교사는 "교사 경력이 18년인데도 당시를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리 치료까지 받았다"면서 "이번에 논란이 되는 사건의 교사가 신입 교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임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린 교



아동학대 민원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하라

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심리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매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빈도도 늘고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 교사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은 전적으로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분별한 피소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처럼 학부모가 교육현장에 무작정 찾아와 항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서면 항의 또는 교장·교감 임의회화 등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학부모의 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

대처법 개정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교원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는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담한다.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 초기부터 교육현장 이해도가 높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교권침해 유형에 '무고죄'를 삽입해 무분별한 고소에서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많은 선생님이 어제 사건을 접하고

밤새 실의에 빠졌다. 정도의 차이지만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버티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뒷짐 지고 서 있는 경우가 많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교사들이 일선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라고 내몰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송육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민원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지만, 학교는 1대 1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악성민원에 취약하다"며 "학교 차원에서 민원 창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chinakim@yna.co.kr

## '교권추락'에 들끓는 교단... "교권이 바닥 치고 지하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직 사회가 들끓는 분위기다.

아직 사건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고발'하는 글들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증가한 상황을 감내하던 교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생

지도는 물론 학부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폭언·폭행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는 손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려던 할머니가 교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담임교사를 통해 아이가 전화를 실수로 다른 친구의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학부모가 교감에게 찾아가 담임교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인천에서는 2021년 11월 30대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학부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생 2명과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고 교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 기도 소리를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언론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학부모의 폭언·욕설이나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경우는 비밀비재하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기분 상해죄'라는 자조섞인 표현이 나온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을 일컬어 '명퇴 도우미'라는 신조어가 지 생겨났다. 특히 최근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

는 소문이 퍼지고 학교 현장이 들끓는 것 자체가 이미 교권 추락으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교직 사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교단에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천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당시에도 응답자의 92.9%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2천269건 중 7.5%(171건)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침해였는데 이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교육부와 현직 교사들의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코로나

19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7월 초·중학교 교직원 2천869명(총 2만 6천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학생을 이해하거나 돕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학부모의 비협조'(55.8%)를 꼽았다.

'과중한 업무'(43.4%)나 '학생의 비자발성'(35.1%)보다 학부모의 협조를 얻기가 더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서울지역 한 학교 교장은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요구해서 시도 때도 없이 문자와 전화로 납득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뽕족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예뻐하지 않는 것 같다며 바로 교장실로 밀고 들어와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다"며 "교권이 바닥을 치다 못해 바닥을 뚫고 들어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 NEW LISTING

PRICE: \$ 1,190,000

Newton Centre. Newton South High School,  
역세권 걸어서 Green Line T 까지 5분,  
방3, 화장실 2.5, 2790SqFt.

하숙, 홈스테이 비즈니스 최상 위치. 렌트 수익성 좋음.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하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46) 제대로 하는 노후준비

미국에 이민 온 한인 동포의 노후 준비는 어떤 상황인가?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이민 생활에서 모든 재정 지식을 이해하고 생활에 반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주식투자, 채권과 이자율 관계, 복리계산, 주택융자금, 학자금 투자, 은퇴 투자,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정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노후준비를 자꾸 미룬다.

우리 한인들은 아이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부부의 노후대책보다도 아이들의 학자금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의 공부는 융자받아서라도 공부할 수 있지만, 은퇴 생활만큼은 절대로 돈을 빌려서 생활할 수 없다. 부모의 부족한 은퇴자금은 아이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관한 관심으로 65살 때쯤 은퇴한다고 해도 은퇴 생활이 30년이란 긴 세월이 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여성들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훨씬 더 길다. 사회보장 연금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은퇴자는 이 돈으로 은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결국 긴 세월의 생활비는 그동안 내가 모은 돈으로 충당해야만 한다.

‘노후준비’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가 최대 관심사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대박날 투자종목을 찾고자 한다. 인터넷, 유튜브, 주위의 친지, 투자의 도사(?), 등으로부터 주식 정보를 얻고자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Hot) 몇 개의 주식이 은퇴할 때쯤 어떤 상황으로 변해 있을지도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것도 없으면서 투자 위험성만은 분명 높아진다.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자그마한 돈이라도 인덱스 펀드(S&P 500)에 투자하는 것이다. 워런 버핏은 평생 투자를 한 사람인데, 몇 년 전 자신의 유언장을 발표했다. 본인 이 사망하면 기부하고 남는 돈을 인덱스

펀드에 90%를 나머지 10%는 채권에 투자 하라고 말했다. 워런 버핏은 2020년 온라인 연례 주주총회에서 인덱스 펀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반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저스(Jeff Bezos)는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베저스: “당신은 세계에서 큰 부자로 일반 사람도 크게 부자 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핏: 그 이유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Because no one wants to get rich slow.)”

은퇴를 위한 투자제도(IRA)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2023년에는 \$6,500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씩 할 수 있다. 수

익률 7%로 계산해서 \$6,500씩 25년 하면 약 \$40만 불, 30년 \$60만 불, 그리고 35년은 거의 \$90만 불이 된다. 부부가 함께하면 당연히 두(2) 배가 되므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인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운영해서 부를 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누구나 손쉽게 목돈을 만드는 방법은 주식투자이다. 이런 이유로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산이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라고 언급한 것이다.

노후 자금을 모으지 못한 것을 나이가 들어 후회한다. 젊었을 때는 돈의 부족을 젊음으로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한 후 돈이 부족하면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노후대책이 늦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그만큼 은퇴자금이 모일 것이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30)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분 때문에) 차기 왕위는 헌강왕의 동생인 김황(金晃)에게로 이어졌으니 그가 정강왕이다. 정강왕은 ‘임시’ (납정절표의 기록이다)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정확하게 1년 후인 887년 7월 5일 후사없이 사망하였다. 헌강왕의 서자 김요는 당시 두 돌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차기 정강왕의 유언으로 여동생 김만에게로 이어졌으니 그가 진성여왕이다. 진성여왕 역시 후사가 없었다. 의붓아들 김양정(양채, 양원)이 있긴하였지만, 진성여왕은 897년 6월 1일 서조가 김요를 불러 차기 왕위를 물려주고 동년 12월 4일 사망하였다(김요는 875년 태자로 책봉되었다. 진성여왕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살아서 왕위를 물려준 몇 안되는 왕이다). 김요는 진골의 신분도 아닌 평민 어머니의 아들로 왕이 된 신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이다. 그가 효공왕이다. 겨우 12세 무렵에 즉위한 효공왕은 14세 무렵인 899년 박예겸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효공왕 시대에는 지방 호족들이 군웅할거하였다. 892년에 거병한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였고, 901년 궁예(47)가 후고구려를 건국하면서 가야호로 한반도에는 ‘후삼국 시대’가 펼쳐졌다. 그리고 견훤과 궁예의 공격으로 수도 금성(현경주)과 삼랑주(현경남 양산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였다. 효공왕은 처음에는 대사면령을 내리고 문부 백관들의 작위도 올려주면서 선정을 펼쳐보

려고 노력을 했지만 계속되는 지방 호족들의 봉기로 국토는 축소되었고 왕권도 실추되었다. 말년에 왕은 (신분이)천한 첩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이에 은영(隱嬰)이 간언하였지만 왕은 듣지 않았고 결국 은영은 왕의 첩을 죽이고 말았다. 효공왕은 912년에 후사없이 사망하였다. 그의 나이 고작 26~7세였다. 효공왕을 마지막으로 785년에 즉위한 제38대 원성왕의 후손들이 계승했던 왕위는 모두 끝났다(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金夫)가 원성왕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는 견훤에 의해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제17대 내물왕(마립간)부터 이어져 온 556년간 김씨에 의한 독점적 왕위세습 또한 종말을 고했다. 차기 왕은 효공왕의 처남이자 박예겸의 아들인 박경휘(朴敬輝)가 차지하였다. 그가 제53대 신덕왕이다.

47) 궁예는 제47대 헌안왕 또는 제48대 경문왕과의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이다. 헌안왕의 서자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는 면은, 적자가 없었던 헌안왕은 도성의 모든 진골 젊은이들을 임해전으로 집합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출중하다고 생각되는 김응림을 선택하여 사위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래서 왕위계승권에서 밀려난 궁예는 유모의 도움으로 피신하여 세달사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문왕의 서자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는 면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그가 축묘(축)년생인데, 축년은 857년, 869년이다. 그가 891년 절

을 떠나 처음으로 봉기(반란)에 참여한 것으로 보면 869년생, 즉 경문왕의 서자라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실린 궁예의 출생 비화를 간추려 보면, 그는 음력 축묘(축)년 5월 5일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때 무지개 형상을 닮은 흰 빛이 지붕 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치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단오에 태어난 아이를 불길하게 여기던 세습(世習)과 궁예의 특이성을 종합하여 일관은 아버지인 왕에게 궁예를 죽일 것을 청했다. 그래서 왕은 중사(中使) (궁중에서 왕명을 전하는 내시)에게 명하여 그를 죽이라고 하였다. 왕명을 받은 중사는 궁예를 포대기에 싸서 높은 누대 위에서 던졌다. 이를 미리 알고 있던 유모는 누대 아래서 떨어지는 궁예를 받았다. 다행히 아기의 목숨은 구했지만 이때 유모의 손가락이 눈을 찌르는 바람에 궁예는 한 쪽 눈을 실명했다. 유모는 궁예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 그를 길렀다. 10여세가 되어도 말쑥만 일으키는 궁예에게 유모는 그의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었고, 이에 깨우친 바 있었던 궁예는 집을 나와 세달사에서 도력을 키웠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 OUR LOWEST PRICE!

#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LY 20th - JULY 27th, 2023**

~~Reg. \$7.99~~

Roasted Seaweed  
with Olive Oil

# \$5.99

**12 PACK**  
+  
**12 PACK**



**LIMIT 2 BUNDLES**

**(0.16 OZ X 12 EA) X 2 PKG/BUNDLE**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 웃음·액션·통쾌함 삼박자..김혜수·염정아 워맨스 빛난 '밀수'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신수 좋아졌네?"(진숙), "많이 독해졌다?"(춘자)

가난한 해녀 진숙(염정아 분)과 전직 해녀 춘자(김혜수)가 따귀를 두 차례씩 주고받더니 서로를 향해 말한다.

한때 피붙이 같던 두 사람은 수년 전 밀수를 하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원수로 돌아선 사이다.

돌은 어촌 도시 군천에 화학공장이 들어선 뒤 먹고살 길이 없게 되자 바다에 던져진 밀수품을 건지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갑자기 세관이 들이닥쳐 해녀들이 체포되고, 우왕좌왕하던 사이 진숙의 아버지와 동생이 사고로 죽으면서 이들의 '한탕'은 막을 내린다.

춘자는 유유히 바다를 헤엄쳐 빠져나가 옥살이를 피한다. 반면 진숙은 교도소에 갇힌 채 춘자를 원망한다.

시간이 흘러 서울 명동. 춘자는 시골 아낙의 티를 벗고 화려한 도시 여자가 됐다. 그는 대변신한 모습으로 군천으로 향한다. '밀수 오야방'으로 불리는 권 상사(조인성)의 협박 때문에 다시 한번 밀수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한 진숙과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춘자는 해묵

은 감정을 뒤로 하고 다시 범죄 파트너가 된다.

류승완 감독의 신작 '밀수'는 1970년대 가상의 도시 군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양 범죄 활극이다. 점차 전사가 되어 가는 해녀들의 모습과 뚜렷한 권선징악의 스토리는 웃음과 액션, 통쾌함까지 삼박자를 갖췄다. '베테랑', '부당거래', '모가디슈' 등 류 감독의 대표작처럼 세 요소를 고루 분배해 관람 후에도 개운한 뒷맛을 준다.

'밀수'는 올여름 극장가에 걸리는 한국대작 영화 4편 중 가장 먼저 개봉하는 영화이면서 유일하게 여자들이 주인공인 작품이다.

다음달 2일 나오는 하정우·주지훈 주연의 '비공식작전'이 브로맨스를 내세웠다면 '밀수'는 김혜수와 염정아를 필두로 한 워맨스를 선보인다.

춘자와 진숙은 처음엔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오해를 풀고 예전처럼 물질 짝패가 된다. 다방 사장 옥분(고민시)과 양금네(박준면), 돼지엄마(김재화), 똑순이(박경혜), 억척이(주보비) 등 해녀까지 가세하며 여자들만의 드림팀이 완성된다. 이들의 목적은 곧 바다에 던져진 다는 3억원짜리 다이아몬드와 과거

일에 대한 복수다.

군천의 밀수 관을 짝꿍하고 있는 장도리(박정민)와 세관 직원 장춘(김종수)을 상대로 본격적인 사기극이 펼쳐지는 중후반부로 갈수록 긴장감과 재미는 더해진다. 여기에는 캐릭터 각각의 매력과 이를 연기한 배우들의 힘이 크다. 앞서 제작보고회에서 "그동안 맡은 배역 중 가장 상스러운 연기"를 했다고 말한 김혜수는 '타짜' 속 정 마담과 '관상' 속 연홍 사이를 오가며 해녀 출신 사기꾼 역할을 훌륭히 소화한다.

웃음은 장도리 역의 박정민과 옥분 역의 고민시가 담당한다. 박정민은 악독한 역할을 맡았지만, 어딘가 모자라고 찌질해 대사 한 마디에도 웃음이 난다. 단아하거나 반항적인 인물을 주로 연기해온 고민시는 '밀수'에선 뽕뽕 터지는 '웃음 벨' 역할을 한다.

류 감독 영화에 액션신이 없는 건 가쉽해질 때쯤 권 상사 패거리와 장도리 패거리 간 전쟁이 벌어진다. 칼과 도끼, 쇠사슬을 들고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서로를 향해 휘두른다. 예상보다 높은 수위에 잠시 눈이 질끈 감기기는 하지만, 화려한 손놀림과 발놀림이 눈길을 재차 잡아준다.



해녀들 역시 화려한 수중 액션을 보여준다. 장정 여럿이 칼을 들고 해녀들에게 달려들어 보지만, 평생을 물에서 살다시피 한 이들을 당할 재간이 없다. 자유롭게 바닷속을 헤엄치는 이들은 힘을 합쳐 적을 하나씩 제거해나간다. 이들의 무대인 바닷속도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줄 만큼 실감 나게 표현됐다.

김혜수와 염정아는 원래 수영조차 하지 못했고, 물에 들어가면 공황증세까지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밀수' 촬영을 앞두고 3개월간 수중 훈련을 거친 끝에 깊이 6m에 달하는 수조에서 연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아티스틱 수영 국가대표 출신 김희진 코치가 이들의 물속 동작을 더 유려하게 만들어줬다.

7월 23일 - 7월 29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http://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b></p> <p>● 운수: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기보다는 뒤를 따르는 형식을 취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 금전: 여는 때보다도 씀씀이가 늘어납니다. 좀 더 알뜰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 애정: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란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화를 녹이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보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p>	<p><b>소띠   냉철한 눈으로</b></p> <p>● 운수: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냉철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 금전: 꼭 들어올 돈을 미루어지고 급하게 쓸 일은 생기기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이니 지출에 신경 쓰세요. ● 애정: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b>범띠   현실적인 판단이</b></p> <p>● 운수: 능력 있는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야 큰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금전: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 금전운이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수입이 나아집니다. ● 애정: 애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군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p>
<p><b>토끼띠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가</b></p> <p>● 운수: 힘들게 산을 넘고 이제는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심·걱정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는 일이 있겠습니다. ● 금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원하던 돈도 들어오면서 송충이 트입니다. ● 애정: 반갑고 기분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미혼남녀는 일생을 같이할 배필과의 인연이 이어지는 때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p>	<p><b>용띠   깊은 관심이 필요한</b></p> <p>● 운수: 예상치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낮은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 금전: 항상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서로 바로 알지 못하면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b>뱀띠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b></p> <p>● 운수: 외유내강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인심도 얻고 귀인의 협조도 얻게 됩니다. ● 금전: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삶의 즐거움이나 가치는 자신이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4, 26일 길일. 25, 28일 주의.</p>
<p><b>말띠   되로 주고 말로 받는</b></p> <p>● 운수: 평소애 계획한 일을 구체화하여 추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뒷사람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고 승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어집니다. ● 애정: 혼자 지내오던 사람은 이상형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끼지 않은 사랑을 속삭일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p>	<p><b>양띠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야</b></p> <p>● 운수: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쓰면서 대인관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야 손해가 없습니다. 금전 문제로 부부가 옥상낙산하기 쉬우니 내가 먼저 참도록 하세요. ● 애정: 새것을 취하기 위해서 옛것을 가버려 여기고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평도 매도 다 일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8일 길일. 27, 29일 주의.</p>	<p><b>원숭이띠   이정표를 찾도록</b></p> <p>● 운수: 살아가는 데에 길이 많지만 수많은 길 중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이정표를 찾도록 하세요. ● 금전: 지난날에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니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겠습니다. ● 애정: 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p>
<p><b>닭띠   인덕이 따라주어</b></p> <p>● 운수: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덕이 따라줄 것입니다. 실업자는 새 직장을 얻게 됩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들어와야 하는 돈이 들어오니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됩니다. ● 애정: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4, 25일 길일. 27, 29일 주의.</p>	<p><b>개띠   여유 있는 마음을</b></p> <p>● 운수: 하고자 하는 의욕과 활동의 영역을 넓혀보려는 생각은 있지만, 몸과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입니다. ●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여유 있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웅충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 애정: 이면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원가 결산까지 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5일 길일. 24, 27일 주의.</p>	<p><b>돼지띠   단호히 결정하여</b></p> <p>● 운수: 원하는 일을 더는 미루지 말고 단호히 결정하여 시작하도록 하세요. 투자하거나 변화나 변동을 시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금전: 기다리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미루고 지체할수록 손해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이성 간에 있어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프러포즈도 받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9일 길일. 25, 27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1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D.P.' 정해인 "못다한 이야기 다룬 시즌2 ...밀도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D.P.' 시즌2는 전 시즌에 이어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체포조 준호와 호열이 여전히 변한 게 없는 현실과 부조리에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배우 정해인은 18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작발표회를 통해 이달 28일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 시즌2를 이렇게 소개했다.

정해인은 "시즌1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즌2에서 더 밀도 있고 깊어진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D.P.'는 헌병대 군무 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의 이야기를 다룬 시리즈다. 2021년 공개된 시즌1은 폐쇄적인 군대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조리와 비극을 사실적으로 다뤄 호평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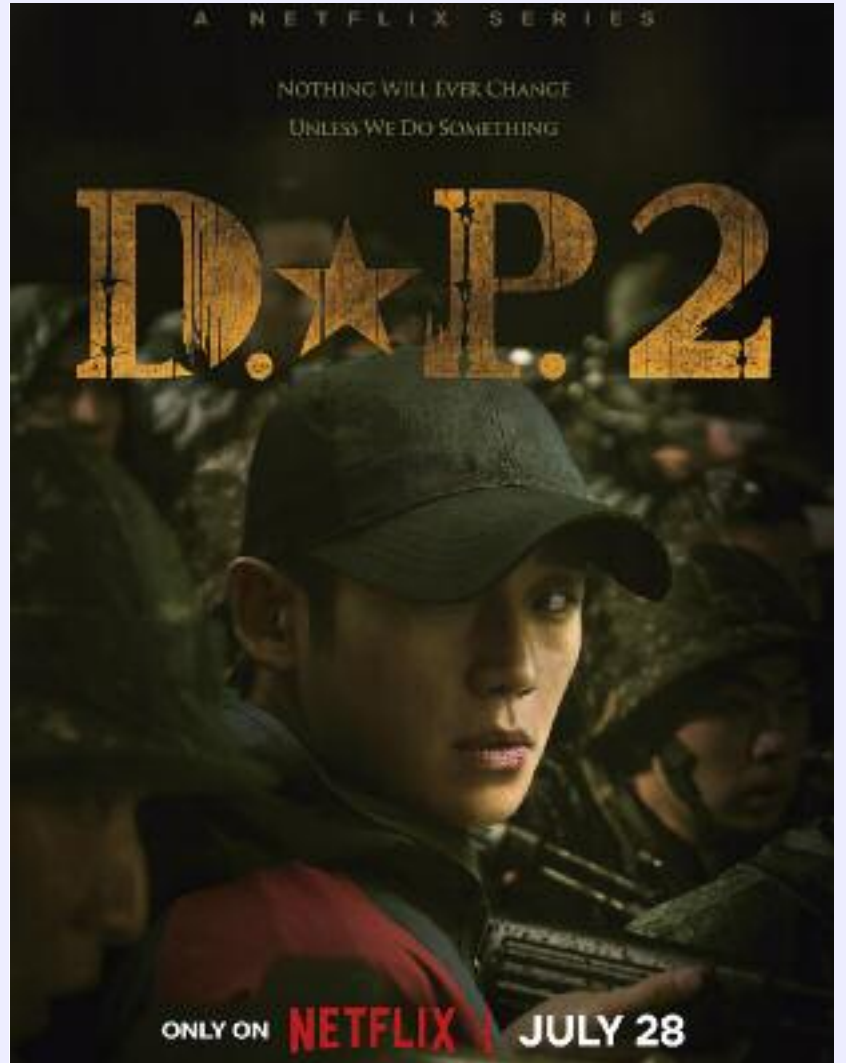
정해인은 군무이탈 체포조에 새로 배치된 군인 안준호를 연기한다. 준호는 선임인 한호열(구교환)과 한 팀을 이뤄 탈영병을 쫓는다.

시즌2는 시즌1이 끝난 직후의 일을 다루고 내용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즌2는 1회가 아닌 7회부터 시작한다. 6회짜리 시즌1과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취지다.

정해인뿐 아니라 구교환도 그대로 시즌2에 출연한다. 헌병대 군무이탈 담당 수사관 박범구 역의 김성균, 헌병대장 보좌관 역의 손석구 모두 시즌2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시즌2에는 새로운 얼굴도 합류한다. 배우 지진희는 군의 각종 비리를 덮는 육군본부 법무실장 구자운 역할을 맡았고, 김지현은 국방부 검찰단 작전과장으로 출연한다.

지진희는 "처음 출연 제안을 받고 너무 기뻐했는데, '나는 프로니까 티 내지 말



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시즌1이 워낙 사랑받은 드라마라 시즌2에서 어떻게 스며들어야 할지 걱정했고, '나만 열심히 잘하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D.P.' 시즌1은 군 가혹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국방부 관계자가 정례 브리핑에서 "병영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설명할 정도로 과장이 일었다.

한준희 감독은 "과장을 예상하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 가깝다. 답을 제시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감독은 또 "D.P.' 시리즈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짧고 즐거운 이야기도 많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존재해야 하나, 너무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희가 이 시리즈를 만들고 기획하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고 염두에 둘 수 있고 주의할 수 있다"며 "그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감독은 이어 "D.P.' 시즌2는 슬픈 이야기"라며 "특정 기관에 대한 이야기보다 (드라마 속에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 BTS 정국 '세븐', 스포티파이서 4일 연속 1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발표한 솔로 데뷔곡 '세븐'(Seven)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4일 연속 1위에 올랐다.

19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세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일간 스트리밍 횟수 1천279만1천48건으로 '데일리 톱 송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첫 진입 이래 4일 연속 기록이다.

'세븐'은 이 밖에도 일본 오리콘 주간 디지털 랭킹에서 주간 다운로드 수 2만4천99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세븐'은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다음 주



발표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최상위권 진입이 기대된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만남에 대하여...

만남, 늘 큰 과제이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인연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만남이 서로에게 씩씩한 여운을 남기며 멀어지기도 한다. 그쯤이면 그나마 다행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을 만큼 악연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쏟아진 물을 다시 담는 것은 어렵다. 그러하기에 물이 쏟아지기 전에 조심을 하든가 아니면 물그릇을 가만히 내려놓든가 하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는 그렇듯 살아가려 한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할 이유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세상 나이 예순의 언덕에 오를 즈음은 사람 사귀기가 껍이나 어렵다는 얘기를 이번 한국방문 중에 여러 차례 들었다. 그것은 그만큼 새로운 사람과 만나 나를 소개하거나 상대방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어린 시절에 비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만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것이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그리 많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 역시도 그 이야기에 동의할 한다. 지금까지 지내온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다. 곁에 있는 인연에도 소홀히 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이다.

내 곁에 있는 인연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말간 아침을 맞는다. 그렇다,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는 나름대로 생각과 목상이 필요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하면서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느 여행 때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보다는 친정 언니와 함께 나눈 시간이 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 곁에서 삶의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이 오버랩 되어 스쳐 지나간다. 모두가 고마운 사람들이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인연들이다.

언니는 말해온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느냐고 말이다. 남편이 있을 때도 자유분방한 성격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훌쩍 남편을 떠나보낸 동생을 보며 안타까움이 큰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도 잘살아 왔지만, 아이 셋을 다 잘 키워 놓고 각자 자리매김하며 사니 마음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말이다. 요즘은 혼자서도 다 잘살아 가던데 더 편안하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니는 동생을 보며 걱정 어린 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동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언니의 마음은 충분히 알 것 같다. 고맙다. 내 언니가 있다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 중에 참으로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마음을 알아갔다. 나중에 뉴욕에 돌아오기 전에 언니는 말해온다. 동생이 사역자(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응원을 해준다. 친한 언니 친구에게도 내 동생이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다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 동생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전해져서 고맙다.

만남, 그렇다! 새로운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인연에 감사하며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겠다. 나를 새롭게 알려주지 않아도 나를 너무도 잘 아는 이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살아가리라.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 형제, 자매와의 인연 이 모두가 귀하지 않은가. 세월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서로에게 진실한 나눔으로 더 나아가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든든한 삶의 오늘이면 좋겠다.

그렇다, 서로가 누군가의 사랑을 원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서 도망하고 싶어진다. 뜨겁지 않을 만큼에서 서로에게 예의와 배려의 나눔이면 좋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하면서 서로 책임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는가. 이런저런 만남을 생각하며 여러 모양의 만남과 여러 색깔의 만남을 생각해 본다. 그 어느 것 하나 과하지 않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은 그런 만남이길 소망해 본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제대로의 만남을 세우고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제대로 먹는 나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에선 문화체육부 차관에 전前역도선수가 임명되었단다. 여성선수였는데, 신문기사중 눈길을 끄는게 있었다. 그의 나이에 관한 거다. 그가 최연소 차관에 취임 다는 거다. 최연소라, 나이가 몇살이라더라. 만 나이인가. 세

는 나이 인가. 연 나이인가. 아니면 온 나이 인가? 그것도 아니면 먹은 나이 인가. 참, 호적 나이도 있었다. 초라한 나이, 부끄러운 나이. 화려한 나이. 나이엔 종류도 다양하다.

이제는 만나이로 나이를 정한

다고 했다. 나이야 매년 먹게 마련이다. 한해에 한살 이상 나이를 먹을 수는 없을 터.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는 나이가 없긴 하다.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을' 적이니 말이다. 아니 태어날 적부터 한살로 치던가. 하긴 갓난 아이는 미역국도 먹을 수 없다.

언젠가 읽었던 시 한편이다. 육순의 문턱이다. 제목도 심상치 않은데, 쓸쓸하다.

아주 낮선처음 찾아온 손님갈 이육순이 문지방을 넘어섭니다.

어쩐다허나 얼른 마음 고쳐먹고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어서 오시게나오실 줄 알았네" (문중수, 육순의 문턱에서)

하나 덧붙인다. 양력 나이와 음력 나이도 있다. 음력은 양력에 비해 대략 한달여 지난 후에 이른다. 그러므로, 정월 초라 해도 음력으로는 아직도 한살을 더 먹는 건 아닌게다.

나역시 아버지 찬스로 보름 일찍 국민(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만 여섯살이 되지 않았는데, 선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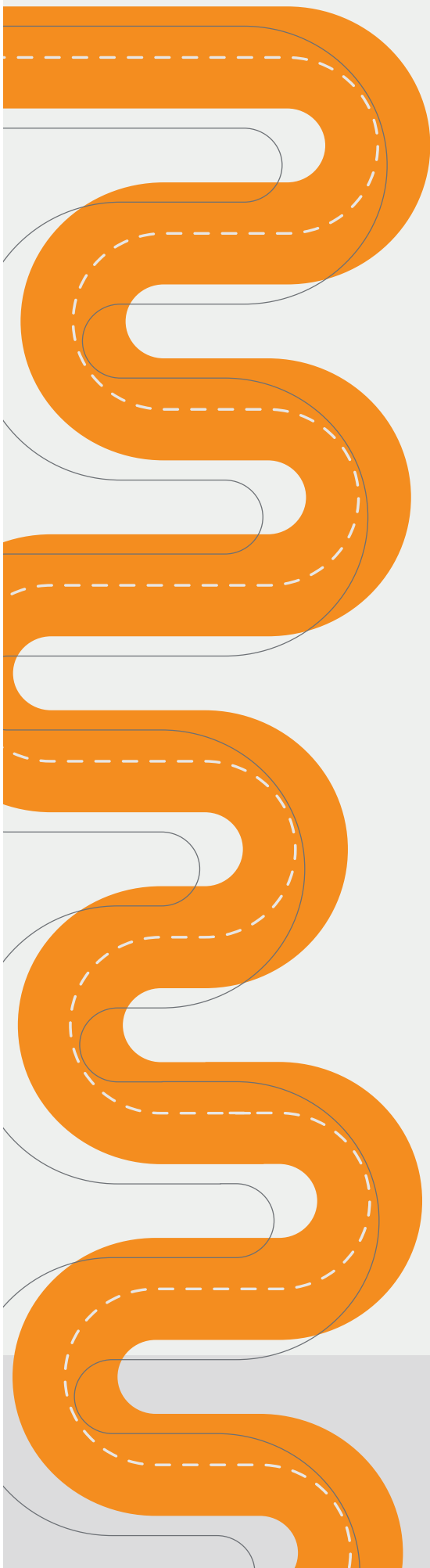
은 그학교 교감선생님이셨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닥 드문일은 아니었다. 한참 지나고 보니 나보다 생일이 늦은 아이들이 제법 많았던 거다. 생일이 사월 심지어 오월인 아이들도 입학할 수 있었으니, 개들도 무슨 뺨이 있었던가?

나이를 제대로 먹기를 원하노니 나잇값 하길 원한다. 자랑스럽지는 않을 지언정, 초라한 나이는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일 진저.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28)



#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세요.



## 1 단계 필요 서류 준비

#1 신분 및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해외 여권과 출생 증명서 또는 미국 결혼 증명서 두 가지 문서를 제출하세요.

#2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경우, 지원서에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SN(사회보장번호)이 발급된 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선언서에 서명합니다.

#3 메사추세츠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 명세서나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 2 단계 등록을 위한 예약은 여기에서 Mass.Gov/MyRM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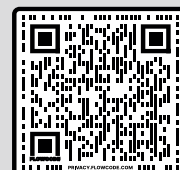


## 3 단계 연습 면허 시험을 봅니다.



## 4 단계 Mass.Gov/MyRMV 를 방문하여 도로 주행 테스트 일정을 잡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Mass.Gov/RoadTest 방문하기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ass.Gov/WFMA](http://www.Mass.Gov/WFMA)  
방문 또는 전화  
857-368-9362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머리 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터지면 병원 도착 전 20% 사망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머리 속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휴람 의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K(60)씨는 최근 건강검진 중 뇌 자기공명영상 혈관촬영(MRA) 검사(MRI 장비로 뇌혈관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를 했는데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빨리 뇌 수술을 받든지 시술해야 한다는 얘기에 평소 아무런 증상도 없던 K씨는 고민에 빠졌다.

건강검진 뇌 컴퓨터단층촬영(CT) 혈관조영술 검사에서 5mm 크기의 '뇌동맥류'가 진단된 A(55·여)씨는 혈관과 열 위험이 높기에 코일색전술(시술)을 시행하지는 권유에 당장 증상도 없는데 꼭 치료해야 할지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다.

뇌동맥 일부가 파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腦腫脈瘤·cerebral aneurysm)는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팔다리 마비 등 후유증은 물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초음급 질환이다. 이 때문에 '머리 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뇌출혈) 병원에 도착

하기 전(20%)과 치료 도중(28%)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하지만 뇌동맥류는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채기 어려워 건강검진 등을 통해 대부분 발견된다. 이들 질환은 골든타임 내 치료하면 예후(치료 경과)가 좋지만 예방이 우선이다.

뇌동맥류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만약 뇌동맥류가 터지면 출혈이 한꺼번에 두개강 내 지주막하(蜘蛛膜下) 공간으로 흘러나온다. 이때 번개가 치는 듯한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을 겪는다.

특히 출혈량이 많으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따라서 뇌동맥류를 진단 후 어떻게 대처할지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고 정기적으로 상태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좋다.

뇌동맥류는 뇌동맥류 크기, 위치, 모양, 나이 등을 고려해 뇌 수술에 해당하는 개두술을 통한 '클립결찰술(aneurysm neck clipping)'이나 혈관을 통해 접근해 치료하는 뇌혈관 내 치료 또는 중재적 시술에 해당하는 '코일색전술(coil embolization)'을 시행해 치료한다.

결찰술은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 오랫동안 시행돼 온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이미 정점에 도달해 있다.

그 방법은 두피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작게 열어 수술 현미경을 통해 뇌동맥류를 노출해 동맥류 목(입구)을 클립으로 묶어서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법이다.

코일색전술은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동맥류를 치료하는 비침습적 시술법으로 허벅지(서혜부) 대퇴동맥을 통해 여러 단계의 카테터(catheter·도관)를 사용해 뇌동맥에 접근한 뒤 뇌동맥류에 백금코일을 채워 혈류를 차단해 동맥류가 터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동맥류 입구가 넓은 경우 혈관 내 스텐트나 풍선을 이용해 입구를 지지하고 코일 색전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남택균 교수는 "코일색전술은 머리를 여는 개두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시술 시간도 3시간 이내로 비교적 짧으며, 치료 후 1~2일 이내에 퇴원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다만 코일색전술은 클립결찰술(수술)보다 재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남택균 교수는 "통계적으로 10명 중 1명은 다시 치료해야 하기에 클립결찰술에 비해 재발 확인을 위해서 시술 후 추적 검사를 자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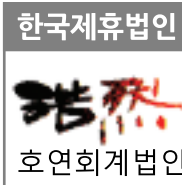
실제 뇌동맥류로 인한 코일색전술 시술 후 6개월, 1년 6개월, 3년 6개월, 5년 6개월에 추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치료 시 스텐트 보조 하에 코일색전술을 시행했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2년 정도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권정택 교수는 "뇌동맥류로 진단되더라도 환자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두 가지 치료법을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법을 찾아 신속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머리 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1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1위

# 양인모

## 바이올린 독주회

Yun Janice Lu, 피아노



### 8월 6일 (일)

오후 3시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윌리엄스 홀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티켓: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

일반 \$30/ 시니어 \$20  
학생: 사전 등록시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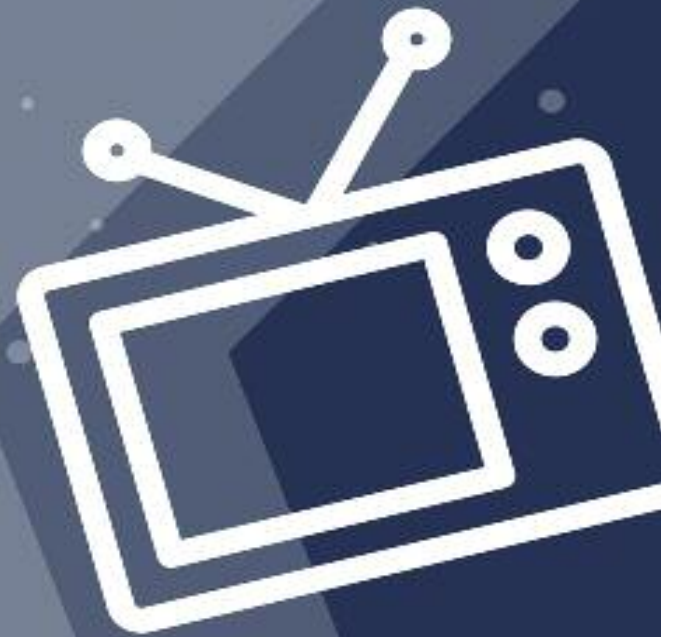
(781) 223-4411

#### 프로그램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 G 단조  
야나체크: 바이올린 소나타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 장조



# 한국방송 어떤거 보세요?



한국TV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방송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배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855-826-4636**  
**855-TBO-INFO**



# 휴람 - 성형외과

##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mkorea.com





#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